

養育態度檢査 豫備型의 問項檢査一再檢査 信賴度의 分析

Analysis of Test-retest Reliability of Individual Items in a Preliminary Form of Child-rearing Attitude Scale

서울大學校 心理學科

副教授 車 載 浩

Dep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Jae-Ho Cha**

忠北大學校 家政教育科

副教授 鄭 鈴 淑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ong Pook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Young-Sook Chong**

明知大學 家政學科

副教授 李 喜 子

Dept. of Home Economics, Myongji Univ.

Associate Prof.; **Hee-Ja Lee**

<目 次>

I. 研究目的

II. 方法

A. 調查對象者

B. 質問紙

C. 節 次

D. 資料處理

III. 結 果

A. 反應一致百分率

B. 相關信賴度

C. 두 문항명가지표간의 관계

D. 問項의 選拔

參考 文獻

<Abstract>

As a step preliminary to the factor-analysis of a child-rearing attitude scale under construction, its preliminary form containing a total of 368 self-answered questions was administered to 88 married women with one or more children in the grade school age, all graduates of colleges and in possession of a home telephone and a house, twice from one week apart. The test-retest correlation coefficients, calculated for each test item based on the subject's choice among the three response alternatives on two test occasions, ranged from .80 to .10. The cut-off point of $r = .41$ or lower led to the elimination of 48 items. As a point of incidental interest, the rate of response concordance. The number of subjects giving the same category response on two occasions was calculated for each item and it was correlated with its test-retest correlation coefficient. The two different indices of item test-retest reliability were found not related to each other. Empirical evidence, as well as rational justifications, was presented to show tha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the better of the two indices of item test-retest reliability.

I. 研究目的

本 研究의 目的은 養育態度檢査를 만들기 爲한 二次段階로서 (豫備型檢査의 製作에 이어) 豫備型檢査에 包含된 問項 하나 하나의 適否를 評價해 보는 것이다.

問項의 適否를 알아보는 方法으로 흔히 쓰이는 것은 問項 各各의 間的合致度(internal consistency)의 檢證이지만 이제까지 檢査製作者들이 잘 使用하지 않은 適否審査基準은 問項의 檢査一再檢査信賴度(item test-retest reliability)이다. 이것은 問項安定度(item stability)란 말로도 表現할 수 있다.

한 問項이 거듭되는 檢査에서 應答者로부터 얼마나 같은 反應을 얻어 내느냐를 測定하여 이것을 問項評價의 基準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다. 勿論 좋은 問項은 檢査一再檢査信賴도가 높아야 한다. 따라서 問項選拔過程에서 各 問項의 檢査一再檢査信賴도를 알아 보고 신뢰도가 높은 問項을 뽑게 되는 것이다.

檢査一再檢査信賴도는 檢査全體에 對해서는 흔히 適用되어 왔지만 問項에 對해서는 適用된 例를 別로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런 좋은 基準을 問項에 適用안 했다는 것은 잘 納得이 안 된다. 問項의 檢査一再檢査信賴도를 높이면 당연히 檢査自體의 檢査一再檢査신뢰도가 높아지겠지만 그 逆은 眞이 아니다. 檢査의 檢査一再檢査신뢰도가 비교적 높다는 그 檢査 속에도 檢査一再檢査신뢰도가 낮은 問項이 끼어있을 수 있다. 本 研究者들은 問項內的合致度(item internal consistency)보다는 問項의 신뢰도가 더 기본적인 問項適否評價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研究에서는 問項의 檢査一再檢査신뢰도를 알아보기 爲해서 豫備檢査樣式을 같은 應答者群에서 二次에 걸쳐 實施하고 各 問項에 對한 應答者의 反應을 分析하기로 하였다.

II. 方 法

A. 調査對象者

調査對象者는 서울과 淸州에서 各各 50世帶에서

의 主婦가 第一次 및 第二次 質問紙調査를 畢하였는데, 全體標準의 크기는 90명이었으나 자료처리된 것은 88명이었다. 研究對象者는 主婦가 大卒以上の 學力을 가졌고, 電話와 自宅을 지닌 家庭으로 하였다. 이들은 韓國의 社會經濟 계층으로 보아 中류 이상의 家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主婦가 質問에 對하여 응답한 내용은 子女中 國民學校에 다니는 한 子女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B. 質問紙

質問紙는 모두 368問項으로 구성된 것으로 30면으로 된 (19cm×25cm)책자에 인쇄된 것이다. 각 문항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16. 나는 아이들 앞에 웃는 얼굴을 보이려 노력한다. (흔히 있다)(가끔 있다)(거이 없다)

이들 문항은 먼저의 한 연구(李藝英 車載浩, 1974)에서 使用된 父母用 養育態度檢査에 포함되었던 것과 같은 것이다. 上記 研究의 一環으로 이들 368개의 問項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 그렇게 해서 생긴 38개의 問項묶음들의 點數를 要因分析한 結果 4個의 要因 즉 (1) 溫情—冷情, (2) 過保護—自任 (3) 許容—制約 그리고 (4) 안달—泰平의 要因이 抽出되었었다. (李, 車, 1974, p. 32)

이 질문지의 표지에는 指示文과 例文 그리고 응답자의 신상변인에 관한 질문이 적혀 있었다. 質問紙의 지시문에는 한 問項도 빠짐없이 대답해줄 것을 特別 強調해 付託하는 말이 들어있었다.

C. 節 次

먼저 第一次檢査를 실시하여 豫備檢査양식(質問紙)에 들어있는 총 368個의 문항에 對한 答을 받아내었다.

調査者가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家庭으로 系列的으로 방문하였으며, 質問紙의 一部는 主婦自身이 答을 표시했고 一部는 면접자가 직접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기입했다.

면접자는 忠北大學校 家政教育學科의 學生 5名 및 明知大學 家政學科의 學生 5名으로 총 10名이 動員되었다. 한 응답자가 질문지를 완성하는데 걸린 時間은 平均 150分 정도였다.

第二次 검사는 第一次 검사가 끝난지 平均 7日 이상이 지난후에 실시하였다. 第二次 검사의 절차는 第一項 검사때와 대체로 같았다. 이 경우에도 系烈面接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했으며 면접에 걸린 時間도 第一次 검사의 경우와 비슷했다. 第二次 검사에서 응답자는 모두 第一次 검사를 받았던 응답자들이었다. 나중에 자료처리에서는 第一次 검사만 받고 第二次 검사를 받지 못한 응답자와 또 兩次 檢査中 어느 검사에서 모든 問項에 對해 答하지 못한 응답자는 資料處理에서 除外시켰다. 第一次 검사는 1980年 7월에 實施되었다.

D. 資料處理

調査結果는 第一次應答과 第二次應答의 信頼性을 알아보도록 처리하였다. 두차례에 걸친 質問紙 調查實施에서의 各 問項에 대한 應答의 檢査一再 檢査信頼度를 알아보는 方法에는 두가지가 있다. 그 한가지는 두차례에 걸쳐 같은 반응범주(response category)에 대답한 피험자의 百分率을 各 問項別로 알아보는 方法이다.

이 경우 一致反應을 보인 응답자의 百分率이 높은 問項은 좋은 問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測定值(百分率)를 一致反應百分率이라 부르기로 한다. 다른 또 하나의 方法은 두차례에 걸친 反應間의 相關계수를 내는 것이다. 각 문항은 3개의 연속적 반응범주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1點에서 3點까지의 點數를 配定하면 一次反應點數와 二次反應點數間의 Pearson 相關係數를 算出할 수 있다. 正的相關係數가 높을수록 그 특정문항에서의 반응신뢰도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方式으로 측정한 문항신뢰도를 여기서는 相關信頼度라 부르기로 한다.

두가지 문항신뢰도는 반드시 같은 結果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즉 一致反應百分率이 높은 문항도 相關信頼度는 낮을 수 있다. 그 理·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一次檢査에서 反應한 應

답자가 二次檢査에서 一段階씩 낮추어 반응할 수 있다. 例를 들면 一次檢査에서 “흔히 있다”라고 反應한 應答자가 二次檢査에서 “가끔 있다”로 反應하고 一次에서 “가끔 있다”로 反應한 應答자가 二次에서는 “거의 없다”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반응범주를 바꾼 응답자들은 反應이 不一致하는 事例로 計算될 것이다. 이렇게 段階계씩 낮추거나 또는 높이는 反應移動이 일어나면 反應 不一致로 간주되는데 이런 移動이 한쪽 方向으로 規則的으로 일어난다든지 또는 分布의 平均點을 中心으로 求心的 또는 遠心的인 反應移動이 있게 되면 反應一致率은 멀어지나 一·二次檢査間의 相關 信頼度는 別로 멀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反應不一致百分率에 依한 問項評價와 相關 信頼度에 依한 文항評價가 다를 수 있다는 結論이 나온다. 研究結果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두 다른 指標로 評價한 結果가 實際로 많은 格차를 나타낸다.

Ⅲ. 結 果

다음에는 反應一·致百分率의 結果를 먼저 提示하고, 이어 相關信頼度의 結果를 提示하겠다.

A. 反應一致百分率

문항의 反應不一致度分析에 使用된 事例는 모두 88名이다. 이것은 90名의 應答자의 자료中 2名의 資料가 電算카드上的 착오로 計算에서 除外되었기 때문이다.

反應不一致事例의 分布를 보면 表 1과 같다. 反應不一致란 兩次的 檢査에서 같은 反應범주를 答하지 않은 모든 事例를 말한다. 표 1에서 보면 대체로 反應一致도가 모든 問項에 있어 낮음을 알 수 있다. 例를 들어 應答자의 20%(88名中 18名 정도) 未滿이 反應의 不一致를 보인 문항 즉 應答자의 80%가 反應一致를 보인 문항은 그 數가 不過 57

〈표 1〉 反應不一致를 보인 應答자 百分率(N=88名)

%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5	計
문 항 수	1	4	8	44	63	83	117	38	10	368

〈표 2〉 反應不一致의 基準으로 不適合하다고 判定된 문항들과 가장 適合하다고 判定된 問項을

관	정	문	항	번	호
부적합한 문항 48개 반응 불일치율 >35%		6, 8, 11, 14, 43, 44, 47, 68, 76, 78, 80, 81, 83, 84, 86, 91, 95, 100, 102, 109, 113, 116, 117, 120, 121, 129, 133, 135, 136, 138, 144, 146, 148, 164, 194, 214, 217, 240, 250, 258, 276, 285, 297, 325, 330, 341, 343, 344,			
적합한 문항 57개 반응 불일치율 >20%		17, 28, 34, 38, 51, 52, 57, 61, 62, 63, 65, 69, 77, 99, 105, 106, 123, 124, 130, 150, 151, 163, 169, 170, 181, 184, 196, 199, 202, 204, 205, 221, 227, 254, 256, 268, 272, 277, 279, 283, 286, 290, 298, 306, 309, 310, 311, 312, 313, 319, 321, 326, 337, 351, 356, 359, 364.			

개(총 368개 문항 중에서)에 불과하였다. 표 1의 문항분포를 기준으로 응답자의 35% 이상이 反應不一致를 보인 문항이 不適合한 것이라고 任意的으로 規定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에 該當하는 문항이 48개로 총 문항수 368개의 分布에서 上位端 10%를 좀 넘는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들 문항(48개)을 들어보면 표 2와 같다. 문항분포중이 기준에 의해 가장 적합한 문항을 응답자 20% 미만만이 反應不一致를 보인 문항으로 정의하면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모두 57개가 된다. 이들 문항도 표 2에 나와 있다.

B. 相關信賴度

一次와 二次검사間의 積率相關係數로 본 문항의 검사-再검사신뢰도의 결과가 표 3에 나와있다. 표 3은 각 문항의 r 의 크기에 따른 分布를 나타낸다. 係數가 높을수록 문항의 檢査-再檢査信賴度는 높다. 相關係數(r)의 크기가 $r < .40$ 인 문항들은 모두 37개로 이들 문항번호는 표 4에 포함되어 있다.

〈표 3〉 積率相關係數(r)의 分布

r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計
	빈도	2	5	30	94	143	73	20	

C. 두 문항평가지표간의 관계

표 4에는 相關係數로 부적당하다고 判定된 문항 48개 각각에 對해서 그것이 反應不一致率로도 부적합 判定를 받았는 지의 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萬一 一·二次검사反應간의 相關관계로 문항을 평

가하는 것과 一·二次反應의 不一致率로 문항을 평가하는 것이 같은 結果를 낳는다면 相關係數로 부적합하다고 判定된 문항 48개가 모두 反應不一致 基準으로도 부적합한 것으로 判定이 날 것이다. 萬一 그렇지 않고 두가지 평가기준이 서로 다른 것이라면 相關係數로 부적합한 것으로 判定된 문항中의 상당수가 다른 기준(反應不一致率)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判定를 받지 않을 것이다. 표 4에 보면 相關係數로 부적합한 것으로 判定된 48개 문항中 오직 12개만이 다른 기준으로도 부적합하다는 判定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判定의 合致率은 어떻게 보더라도 극히 저조한 것이다. 이런 結果를 놓고 볼 수 있는 唯一한 結論은 두개의 기준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문항평가기준이 같은 것이 아니면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相關信賴도와 反應不一致率의 두기준 가운데서 문항선발에 보다 적합한 것은 前者이다. 그 理由는 理論적으로 相關信賴도가 더 타당한 문항의 평가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표 4 속의 比較에서도 分明했듯이 相關係數로 不良하다고 判定된 문항이 反應不一致率로 반드시 不良하다(不適合하다)고 判定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기준의 結果가 반드시 一致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理論적으로 豫想되었던 바이다 反應分布가 甚하게 偏布되어 있는 問項에서는 二次에 걸친 반응의 一致率이 극히 높아질 수 있다. 즉 反應不一致는 아주 낮은 것이 豫想된다. 그러나 再次검사에서의 反應의 相關關係로 볼 때 各次의 反應分布가 甚하게 偏布되어 있으므로 變산도가 작고 따라서 相關係數도 작아질 것을 豫想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反應不一致로 보면

〈표 4〉 相關信賴度로 가장 不適合하다고 判定된 ($r \leq .41$) 문항 48개와 이들이 反應不一致로 不適當하다고 判定되었는지 (反應不一致率 $\geq 35\%$, 48문항)의 여부

문항번호	문항의 (r)신뢰도	反應不一致率 $\geq 35\%$	문항번호	문항의 (r)신뢰도	反應不一致率 $\geq 35\%$
11	.31	36*	202	.32	10
14	.22	35*	214	.40	38*
48	.33	34	224	.38	28
54	.35	23	236	.40	30
61	.32	13	240	.39	42*
68	.39	44*	242	.18	32
81	.33	42*	248	.40	32
84	.34	43*	260	.38	31
85	.28	30	262	.41	20
106	.10	18	264	.40	33
121	.26	36*	274	.33	31
122	.22	28	275	.41	22
134	.40	25	276	.36	39*
136	.30	35*	281	.37	32
139	.40	23	285	.36	41*
140	.39	28	287	.37	24
142	.38	28	292	.33	32
147	.37	31	294	.39	33
149	.30	28	297	.35	43*
156	.35	28	307	.30	34
161	.40	34	316	.34	34
168	.39	32	322	.41	24
190	.28	24	342	.40	30
196	.35	10			
197	.36	31			
			計 48문항		計 12문항

* 反應不一致率이 35% 이상임.

적합한 문항으로 나타나지만 相關係數(相關信賴度)로 보면 不適合한 문항으로 들어나게 된다. 이런 豫測과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표 4 참조)를 앞에 놓고 취할 수 있는 길은 相關信賴度の 기준을 취하고 反應不一致率의 기준을 버리는 것이다. 그 理由는 첫째, 後者は 反應의 分布의 모양(偏布상태에) 直接的으로 영향을 받는 弱點을 지냈고 둘째, 문항에서 바라는 檢査一再檢査(信賴度)는 일단의 응답자들을 여러번의 檢査에서 그 문항이 같은 순서로 配列하느냐 여부로서(이는 相關信賴도가 재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응답자가 같은 反應범주에 언제나 어김없이 반응하느냐 여부(反應不一致率 재는 것이다)가 아니기 때문이며, 셋째 相關信賴度

는 反應分布가 偏布되던 낮게 나타나게 마련이고 따라서 해당문항을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고, 反面 反應不一致率은 그런 경우 높아져서 오히려 그 문항이 적절한 것으로 評價하게 되는데 응답자를 辨別하는 문항이 좋은 문항이라고 한다면 相關信賴도가 내리는 評價가 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萬一 相關信賴도가 反應偏布가 비교적 적은 문항을 적절한 문항으로 評價하고 反對로 反應不一致率이 反應偏布가 높은 문항들을 적절한 문항으로 評價한다면 事實 그런지 아닌지는 두개의 기준으로 각각 가장 좋다고 평가된 문항들 사이에 反應이 심하게 偏布된 문항이 몇이나 되는지를 알아 보면 될 것이다.

심한 면모를 임의적으로 一・二次검사中 어느圖에서건 어떤 極端에 속하는 反應범주 하나에 반응한 응답자의 數가 전체 응답자의 80%를 넘는 문항이라고 規定하고 그런 문항이 나타나는 比率를 보면 표 5와 같다. 反應不一致로 가장 優秀하다는 評價를 받은 문항 57개(표 2 참조)를 기준으로 보면 이들 문항의 約 23%가 앞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하여 偏布된 反應分布를 보였다. 이에反하여 相關信賴度로 가장 우수하다고 評價 받은 문항 50개($r \geq .65$)의 경우에는 이들의 4%만이 같은 정도의 反應偏布를 보였다. 이 368개 문항들 가운데 위의 기준에 비추어 反應分布가 偏布된 문항은 모두 17

〈표 5〉 두 기준(相關信賴도와 反應不一致率)에 의해 가장 좋다고 평가받은 문항들 중 심한 反應偏布를 보인 문항의 數와 百分率

문항평가 기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은 문항數	심한 反應偏布를 보인 문항數	심한 反應偏布를 보인 문항의 百分率(%)
相關信賴度	50	2	4
反應不一致率	57	13	23
		15	

개였는데(문항번호로 表示하면 38, 54, 61, 65, 99, 106, 107, 125, 151, 181, 196, 202, 221, 239, 279, 286, 309) 이들의 76%에 해당하는 13개가 反應不一致率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는 극히 우수한 문항이라는 評定을 받았다. 이에 비해 이들 17개의 11%에 해당하는 2개만이 相關信賴度の 기준에 비하여 우수한 문항이란 評定을 받는 것이다. (표 5 참조) 이結果만 보아도 反應不一致도 좋다고(反應一致率이 높아서)평가 받은 문항들 속에는 反應偏布가 심한 문항들이 상당수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反應偏布가 심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辨別力이 크게 弱화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反應不一致率이 낮은 즉 反應一致率이 높은 문항을 選拔하는 것은 반드시 信賴를기만한 문항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反應이 크게 偏布를 보이는 비교적 辨別力이 劣等한 문항을 고르는 癖이 있다. 위의 자료(표 5)로서 두개의 문항평가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反應不一致率이란 기준은 오히려 辨別力이 떨어지는 문항을 고르는 結點을 지니고 있음이 分明해졌다. 이들 두기준은 相互보완적으로 쓸 性質의 것이 아니라 그중의 하나 즉 反應不一致率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結論이 나온다.

D. 問項의 選拔

相關信賴度만을 기준으로 하여 문항들의 적절성을 評價한다면 그리고 $r \leq .41$ 인 문항들을 버린다고 한다면 표 4에 提示된 48개의 문항을 檢査再檢査 信賴度가 낮다는 理由를 들어 脫落시킬 수 있다. 나머지 문항들 320개로 第二豫備檢査를 만들어 이를 실시하여 이들 문항의 要因構造(factor structure)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相關信賴度가 낮아 除去되는 문항들은 표 4에 제시된 문항들이며 이들의 內容은 부록 I에 나와 있다.

參 考 文 獻

1. 李藝英, 車載浩, 아들과 딸의 男性 女性 性에 影響을 주는 어머니의 養育態度次元, 韓國心理學會誌, 1974, 2, 29~40.
2. Becker, N.C.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discipline, In M.L. Hoffman and L.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1964.
3. Cagan, Elizabeth, The positive parent: Raising Children the Scientific Way, *Social Policy*, Vol. 10, No. 4, p.41~48, Jan-Feb 1980.
4. Sears, R.R., Rau, L., and Alpert, R. *Identification and Child Rearing*,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5.

부 록 I

養育態度 檢査 豫備型 問項*

문항번호	질 문 내 용	흔히있다	가끔있다	거의없다
11.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 재미있게 들어준다.	(○)	()	()
14.	부모앞에서도 아이들이 할 이야기를 다하게 한다.	(○)	()	()
48.	귀여워만 하다가도 때로는 아이들에게 엄하게 한다.	()	(○)	()
54.	나는 늘 많은 간섭을 하면서도 아이가 의논해 오면 상대 하여 주지 않는다.	()	()	(○)
61.	아이들에 관한것에 한쪽부모는 책임을 느끼고 다른쪽 부모는 책임을 느끼지 않으려 한다.	()	()	(○)
68.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꼬치꼬치” 물어본다.	()	(○)	()
81.	동무를 선택하는데 신경을 쓰고 간섭을 한다.	()	(○)	()
84.	아이가 넘어져 울어도 혼자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다.	(○)	()	()
85.	아이에 대해서는 병이 없는한 별로 걱정을 안한다.	(○)	()	()
106.	아이들에게 벽찬일을 시킨다.	()	(○)	()
121.	아이들의 성격이나 행동을 잘 비판한다.	()	()	(○)
122.	아이들의 변명이나 항의를 무시한다.	()	()	(○)
134.	아이가 조금더 노력하면 좋을텐데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	(○)
136.	아이가 음식을 먹을때 장난하면서 느릿느릿 먹으면 장난 을 못하게 한다.	()	(○)	()
139.	자기의 성기를 만지고 놀때는 못만지게 한다.	()	()	(○)
140.	손이 더러운데 씻지않으면 씻도록 한다.	()	(○)	()
142.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놀던채로 그냥 두면 정리하도록 시킨다.	()	(○)	()
147.	물건들을 어지러트리며 집안에서 뛰어다니면 야단치거나 엄하게 타이른다.	()	()	(○)
149.	잘못했을 경우 야단치거나 때리는 경우 보다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준다.	(○)	()	()
156.	어린이가 나의 취미에 따라 행동하기 보다는 아이 자신의 취미에 따라 행동하도록 해준다.	(○)	()	()
161.	나는 어린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어린이 세계를 인정한다.	(○)	()	()
168.	나는 누구와 이야기할때 나의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럽다.	(○)	()	()
190.	우리 아이가 큰 인물이 되기란 힘든 일이다.	()	()	(○)
196.	아이들을 교육시키느라고 고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	()	(○)
197.	어린아이에게 정확한 말을 쓰도록 강조한다.	()	(○)	()
202.	우리 아이는 최소한 대학교육은 받아야 한다.	(○)	()	()

214.	될수있는 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준다.	()	(○)	()
224.	어린아이와 같이 생활하기란 힘들고 귀찮은 일이다.	()	()	(○)
236.	어린아이가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다.	()	(○)	()
240.	어린아이에게 위인들의 이야기를 해준다.	()	(○)	()
242.	어린아이가 말을 걸어올때 들은채 만체할 경우가 있다.	()	()	(○)
248.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던 육박지를 때가 있다.	()	(○)	()
260.	아는 사람은 만나기 싫어서 길을 피해갈 때가 있다.	()	()	(○)
262.	사람이 급할때는 도덕을 무시해도 좋다.	()	(○)	()
264.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	(○)	()
274.	손해가 되더라도 옹지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지 않는다.	(○)	()	()
275.	나는 지금의 우리가정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	(○)	()
276.	남들이 나를 친밀하게 시키기는 꽤 어려운 일이다.	()	(○)	()
281.	나는 일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마는 성격이다.	()	(○)	()
285.	정의냐 불의냐를 따지기 보다는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다.	()	()	(○)
287.	나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으로서 지킬 할 도리는 지킨다.	(○)	()	()
292.	나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가정을 꾸밀만한 재간이 없다고 느낀다.	()	()	(○)
294.	조금이라도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을 했을때는 마음이 괴롭다.	()	(○)	()
297.	여럿이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편을 좋아한다.	()	(○)	()
307.	우리집 식구중에는 말을 터놓고 이야기 할만한 사람이 없다.	(○)	()	()
316.	나는 남의 실수를 너그럽이 받아들인다.	(○)	()	()
322.	화를 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찌다가 화를 내는 수가 있다.	()	(○)	()
342.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때 그대로 놔둔 적이 있다.	()	(○)	()

* 본문 표 4에 제시된 문항들임-相關信賢도가 낮아 不適合한 問項들.